



세계역사기행가

천승환

대한민국 역사 유적이 있는 곳이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는 천승환 씨. 그는 잊힐 뻔한, 사라져가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의 파편을 모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픔을 끄집어내는 일은 분명 고통스럽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덕분에 끝길 듯했던 그날의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현재로 이어지며 재해석되고 있다.



2017년 일본 나가사키 원폭 조선인 희생자 추도비 앞에서

상처를 좇다

대한민국만큼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있을까. 우리나라의 보편적 정서를 ‘한’이라 표현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세계역사기행가 천승환 씨는 과거의 가장 아프고 어두운 부분을 찾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 때 선생님 말씀이 지금도 또렷합니다. 역사는 늘 현장에 존재한다고.” 이 말에 공감한 그는 이후 곳곳의 유적을 찾아다녔다.

군 전역 후 2017년 떠난 세계여행은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부푼 마음이었지만 실제 마주한 국외 사적지의 모습은 처참했다. 관리가 되지 않는 건 물론이고 기존 정보와 다른 게 많았다. 인적이 끊겨 버려진 곳들은 더욱 아팠다. 그럴수록 그는 더 깊숙하게 지난날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니 자신이 자연스레 성장하고 있음을 느꼈다. 끊임없는 연구와 고민을 거듭하며 그때 정서를 이해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찬란한 역사 너머에는 눈물과 설움이 있습니다. 근현대사의 단면을 찾으면서 훌쩍 커버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으로 기록하다

사진작가, 문화기획자 등 천 씨는 자신의 직업과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역사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해왔다. 중국 상하이·항저우의 임시정부 청사, 난징 위안부 기념관 등을 방문했으며 일제강점기 강제 노역 장소인 군함도, 중국 하얼빈역, 윤동주 의사의 생가와 묘소가 있는 용정 일대도 기록했다. 알려지지 않은 사이판의 위안부 동굴을 찾아 공개했다. 베트남 전쟁 희생자 위령비에서 두루마기를 입고 찍은 사진은 언론과 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제 작업은 사라져가는 국외 사적지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객관적 사실을 저만의 주관적 시선으로 담아냅니다.”

그는 관동대학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2019년 사이판에 이어 4년 만이다. 이 달부터 도쿄를 비롯한 관동지역에 머물며 지진과 대학살 관련 숨어 있는 흔적을 꼼꼼하게 담을 계획이다. 가을에는 사진전도 열 생각이다.

“쉽지 않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강조하는 천승환 씨. 세계 곳곳에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길 기대한다. 📷